

순천 '청소년의 꿈'에 350억 쏟는다...정책 로드맵 확정

시, 5대 분야 50개 사업 확정·지원
'참여·권리 보장' 보편 복지 실현
학교 밖·위기 청소년 자립 강화

순천시가 청소년들이 지역 안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순천'이라는 비전 아래 5개 영역, 50개 사업에 총 350억1천2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순천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로드맵이다. 특히 순천시의 청소년 인구 비중은 전체의 16.1%(4만4천218명)로, 전국 평균(14.6%)과 전남



순천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순천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순천시 제공〉

평균(13.5%)을 크게 웃도는 '젊은 도시'이다. 시는 이러한 인구 구조에 대응해 15개 부서가 협력하는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참여와 권리 보장 강화'(163억7천300만원)를 통해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와 학교급식,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보편 복지를 실현한다. 이어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77억9천700만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과 위

기 청소년 상담을 강화하고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77억8천300만원)를 통해 인재육성장학회 운영과 지도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또한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27억5천200만원)로 정원 교육 진로 체험과 버스킹 무

대 등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며,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3억700만원) 분야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피해 예방과 성 가치관 형성 지원에 주력한다. 순천시는 이미 지난해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 시설 이용자가 13만명을 돌파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디지털 선도기관 선정 등 각종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정책 역량을 입증해 왔다. 시는 이러한 축적된 자원을 바탕으로 올해 더욱 체계도 높은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소년은 순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훌륭한 시민이자 핵심 자산"이라며 "이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이 가장 행복한 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보성군, 가정의달 '공연 성찬' 문화 향유 넓힌다

'송소희×두번째달' 민요·판소리 선배
22-23일 가족뮤지컬 '슈퍼거북' 무대

보성군문화예술회관이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획 공연을 잇달아 선보인다. 14일 보성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 공모 선정작 2편을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수도권 중심의 우수 콘텐츠를 지역에서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7시에는 첫번째 공연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송소희×두번째달×오단해: 모

단민요'가 관객들을 찾아갔다. 국악 신동 송소희와 깊은 울림의 소리꾼 오단해, 월드뮤직 그룹 '두번째달'이 협업하는 무대로 전통 민요와 판소리를 감각적인 선율로 재해석해 '우리 시대의 국악'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선사했다. 이어 22일(오후 7시)과 23일(오후 2시)에는 가족 뮤지컬 '슈퍼거북 슈퍼도끼'가 무대에 오른다. 유철화 작가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고전 우화 '토끼와 거북'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나다운 삶'에 대한 질문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 어린이들에게는 재미를, 부모 세대에게는 깊은 울림과 행복의 의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연중 다채로운 문

화 예술의 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6월 연극 '헬로우미스터'를 비롯해 7월 '별을 갖고 튀어라', 8월 '국어의 시간' 등 탄탄한 라인업이 예고돼 있다. 공연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다. 특히 보성군민은 할인 혜택을 통해 3천원에 관람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보성군문화예술회관(061-850-8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품격 공연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공모 사업 유치를 통해 보성읍 전담 문화예술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담양예쁜정원 콘테스트 '리소프' 최우수작 선정

담양군은 '2027 남도정원비엔날레'를 앞두고 생활 속 정원 문화를 확산해 인문교 교육과 전통정원 특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6년 제7회 예쁜정원 콘테스트' 우수작 5곳을 최종 선정했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해 관리하는 우수 정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 접수 결과 개인과 단체 등 총 12곳이 참여해 정원 가꾸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군은 심미성과 식재 다양성,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 심사해 최우수상에 응모한 '리소프' 정원을 선정했다. 리소프 정원은 현대적인 감각의 구조물 배치와 주변 생태 경관과의 뛰어난 조화로 공간의 깊이감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대전면 '메밀꽃필무렵'과 대덕면 '송담정원'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창평면 '고택 한옥에서'와 금성면 '금강산야'가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함께 예쁜정원 현판이 수여되며, 상위 수상작은 전남도 예쁜정원



담양군 '2026년 제7회 예쁜정원 콘테스트' 최우수상에 선정된 리소프 정원.

〈담양군 제공〉

콘테스트에 담양군 대표로 참가하는 기회를 얻는다. 김은주 산림정원과장은 "이번 콘테스트가 군민이 직접 가꾸는 아름다운 정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양군 전역이 하나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콘테스트는 지역 경관 개선은 물론 담양의 정원 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여수해수청, 광양항 항로표지 야간 시인성 점검

선박 안전운항 관리체계 강화
CCTV 활용 현장 감시 시연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4일 "광양항 일일 항로표지를 대상으로 야간 기능 및 시인성 점검을 실시하고, 항로표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시연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점검은 부표 식별이 어려운 해역을 중심으로 실제 선박 운항자의 시각에서 항로표지 시인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광양항은 국가산단과 항만 배후시설 조영 등

으로 야간 배후광이 강한 구간이 있으며, 일부 항로는 예인선과 부선 등 작업선박의 통행이 많아 항로표지의 정확한 식별이 매우 중요하다. 여수해수청은 LED 중을 활용한 등부표 시인성 강화와 조치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며 등부표 훼손사고 발생 시 원인 제공 선박 확인과 신속한 복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CCTV를 활용한 현장 감시체계 시연도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등부표 점검 선박 확인 가능성, 주야간 촬영 상태, 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야간 시인성 점검과 현장 개선방안 검토를 통해 선박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항로표지 훼손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서 '청자·분청·백자' 韓 3대 도자 뭉쳤다

고흥·강진·양구 박물관 MOU
순회 전시·공동 기획전 등 개최

대한민국 도자 문화의 정수인 청자, 분청사기, 백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전국 단위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분청문화박물관은 전남 박물관 강당에서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양구백자박물관과 함께 '도자 문화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한국 도자사의 맥을 잇는 세 거점 도시가 전통 도자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마련됐으며, 비색의 고려청자와 자유분방한 미학의 분청사기, 순백의 얼을 품은

백자가 만나 문화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과 현대 도자 작품을 활용한 순회 전시 및 공동 기획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도자 문화 기반의 학술 연구와 세미나를 공동 진행하며, 레지던시 입주 작가 간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공유해 창작 환경의 폭을 넓힐 계획이며, 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장 자료의 상호 대여와 이용 등에도 적극 협력한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는 "세 기관이 함께 빛을 '협업'의 그릇이 우리 도자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도자 전승의 거점이자 지역 관광 활성화의 상생 모델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곡성군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지역 상권 '훈풍'

매월 15만원 지급...100억 유통
읍내 신규 창업 176곳 증가 성과

곡성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신규 창업이 잇따르고 면 단위 이동장터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 경제 지형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지급액 139억원 중 약 71.2%인 100억원이 지역 상권에 풀렸다. 경제 활성화의 신호는 창업 열기로 이어지며, 지난 1월 1천9개소였던 가맹점은 5월 현재 1천245개소로 176곳이 늘었다.

특히 면 지역 가맹점이 723개소로 읍 지역(522개소)보다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농촌 마을의 상업 기반이 확충되고 있다. 읍 시가지에는 안경점, 마트, 식육식당 등 다양한 업종이 새롭게 문을 열었고, 면 단위에서는 트럭에 생필품을 싣고 마을을 순회하는 '효도 장터'가 등장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향후 마을공동체 및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연계해 면 지역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실질적인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면 단위 창업 확대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장흥소방, 기관 사칭 사기 문자 주의 당부

"과태료 부과" 언급 구매 유도
장흥소방서는 14일 "소방기관과 소방업체를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관내 한 숙박시설에 '전남소방본부'를 사칭해 "리튬이온 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구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허위 문자가 발송됐다. 사칭범들은 법 개정과 행정처분을 언급하며 업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제품 구매를 유도하

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흥소방은 즉시 전남 지역 내 소방관서에 사례를 전파하고 숙박시설, 공장 등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공식 SNS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문병은 소방서장은 "소방기관은 절대 특정 업체의 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과태료나 법 개정을 핑계로 구매를 유도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흥=노홍렬 기자